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과의 관계

차 타 순

(부경대학교)

I. 서 론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현상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개성화와 자아 실현을 쉽게 타락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비극적 존재로 전락하도록 한다. 개인의 독특한 개성과 잠재력을 실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자기자신을 진정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써,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이고 중요하다. 그러나 이 자기사랑이 현대사회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결합되어 버리면, 과도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집착의 형태로 변질되어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자기 가치감을 오히려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사회를 Lasch(1979)는 자기애적 사회(narcissistic society)라고 이미 규정하였으며, 이 자기애적 현상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문화적 흐름으로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한국에서도 '개인' '나' '합리성'을 강조하는 개인단위의 경쟁적 삶으로 바뀌면서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타인과 사회에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고 있다. 이만홍과 육기환(1996)이 한국인에게도 자기애에 대한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알아 본 결과, 한국인에게도 자기애적 특성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DSM-III-R(1987)에 기술된 자기애적 성격 장애 특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자기애 현상을 Kernberg(1975), Kohut(1971, 1977), Akhtar와 Thomson(1982), Wink(1991a, 1991b), Nunberg(1979), DSM-IV(1994)의 자기애적 성격 장애 현상 등으로 종합해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화, 칭찬과 주목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사랑 받고자 하는 욕구, 자기 과시와 거만함, 특권의식과 착취성, 우월성, 허영성, 자기중심적 지각, 타인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강한 시기, 내면적 공허감과 무가치함, 취약성, 지나친 과민성 등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에 현상은 분리불안, 자기구조의 결핍, 자기구조의 병리적 융합 등의 원인으로 인해 취약해진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설명하고 있다(Kernberg, 1975; Kohut, 1971, 1977; Mahler, 1979). Kohut(1971, 1977)은 자기에적 장애의 핵심병리는 자기응집성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내적인 구조의 부재 혹은 결핍이며, 자기에적 패턴은 자기표상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즉, 자기에적 활동들은 약하고 미숙한 자기응집성과 자존감을 견고하게 하고, 자기표상의 파편화 및 구조적 붕괴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Kernberg(1975)는 자기에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차갑고 비공감적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 받지 못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며, 아이는 자신의 분노를 부모에게 투사하여 부모를 훨씬 더 가학적이고 박탈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때 아이의 유일한 방어는 자신의 부모가 가치를 두는 자신의 측면을 찾아 웅대한 자기를 발달시키는 것이다(한수정, 1999). Kernberg(1975)는 이 웅대한 자기가 실제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 이상적인 대상이 서로 병리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자기에를 병리적 성격구조로 간주하였다.

자기에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은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일치하지 않음에 의해 병리적 자기에가 형성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Horney(1950)가 말한 소외의 문제와 연결되어진다. 그는 소외를 이상화된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 사이의 불일치와 관련시켰다. 신경증 환자들은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신경증적 실패 때문에 자신이 가진 한계들과 부적절함들을 증오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증오는 자신에 대한 가혹한 요구들, 반복된 자기비난들, 자기 평가절하, 자기 파괴적인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소외는 현실감을 상실한 무감정의 형태로 나타나 개인의 모든 일에 있어서 더욱 비인격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개인은 자기자신의 삶에서 책임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실망감은 점점 더 현실적인 자기를 포기하고 무력한 삶의 형태로 후퇴하게 만든다(Meissner, 1986).

소외의 증상은 일차적으로 청소년기와 청소년기 이후의 집단에서 나타나며, 자신의 삶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고독감과 소외감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문화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친숙한 현상이다. 청소년기는 발달 과정에서 퇴행적 해체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그리고 또한 성격의 발전적인 재조직이 뒤따르는 시기이다(Meissner, 1986). 이러한 발달은 아이가 성인 사회에서 자신의 분명한 역할을 갖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들을 성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소외(alienation)라는 개념은 9세기 Hegel에 의해 학문적인 개념으로 확립된 이후 사회과학의 중심개념으로 발전해 왔으며, '낯설게 하다', '타인의 것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Fromm(1955)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소외가 모든 사회계층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소외를 생산과정 속에서 계급적으로 종속되는 비숙련 노동자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현대인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그는 소외를 '인간이 그 자신을 이질적인 존재로서 경험하는 경험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였으며,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공포는

고립에 대한 공포이며, 따라서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만약 이러한 욕구가 만족되지 못하고 좌절될 때 그는 정상적인 인간 관계라기보다는 집착하고 매달리는 병리적인 유형의 태도를 발전시킨다고 보았다.

Maddi, Kobasa와 Hoover(1979)는 네 가지의 소외유형(무력감, 극단적 모험성, 허무주의, 의욕상실)과 다섯 가지 소외영역(일, 자신, 사회제도, 대인관계, 가정생활)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네 가지의 소외유형에서 무력감이란 사회적 혹은 개인적인 일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고, 극단적 모험성이란 극단적이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면 생동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허무주의란 의미 있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고, 의욕상실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 중요성 또는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소외유형을 ‘소외감’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이 소외감이란 자기애적 성격 특징 중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특징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자기애적 개념에 대한 설명(Akhtar & Thomson, 1982; Wink, 1991b)에서, 자기애적 사람들은 부, 권력, 아름다움, 지적 능력에 대한 환상, 지나친 과민성, 열등감, 무가치함, 취약함, 권력과 명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만성적인 지루함, 직업적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불만족, 윤리와 이상에 대한 진실성의 결여, 소심함과 수동성, 두려움과 억제성, 무력함 등과 같은 특징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자기애적 성격 특징들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내면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소외감을 더욱 더 느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Meissner(1986)도 소외의 문제가 사회적, 문화적 기반과 관계하는 정체성의 문제로 보고, 소외의 병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병리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몇몇 정신분석 대상관계 이론가들(Winnicott, 1965; Kohut, 1977; Masterson, 1990; Miller, 1981)은 자기애를 지루함과 연관시켜 왔다. Winnicott(1965)과 Kohut(1977)에 따르면, 자기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내적 야망(참 자기)과 외적으로 추구하는 현재 목표(거짓자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지루함과 불만족, 공허함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은 개인의 능력과 환경적 도전간의 불일치로 이러한 감정들이 발생됨을 의미한다. Emmons(1981)은 자기애가 지루한 감정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는데, 이러한 지루한 감정은 결국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감각추구를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졌다.

자기애에 대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자기애 성격이 현상적으로 외현적, 내현적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어진다고 보고, 이 둘 간의 차별에 대한 유용성을 제안하였다(Gabbard, 1989; Masterson, 1990; Wink, 1991a, 1991b).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자기몰두, 특별하다는 느낌, 경멸에 대한 취약성 등과 같은 특징들을 공유하는데, 외현적 자기애는 외향성, 반항성 등에 의해 나타나지만,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팽창된 자기감은 내향적인 대인간 형태, 우울감과 불안, 불안정감과 취약성 등에 의해 분명하게 감지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Wink, 1996).

Helson(1993), Wink와 Donahue(1996)는 지루감이 외현적, 내현적 특징들에 존재한다고 하

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Wink와 Donahue(1997)는 자기애의 두 유형과 지루함 사이의 관계성을 조사하였다.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에 의해 측정된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모두는 지루함 척도(BPS; Boredom Proneness Scale)와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으며, 모험과 흥분에 대한 욕구를 측정하는 BPS 하위척도와도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내적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 흥분과 변화(외적 자극)에 대한 욕구가 뚜렷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외향성과 반향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외현적 자기애는 외적 강제성에 대한 반응으로 활동성과 성급함을 측정하는 BPS 하위척도와 상관이 있었고, 내적 고갈감으로 특징 지워지는 내현적 자기애는 흥미로움과 즐거움과 같은 내적 자극의 결핍, 무의미한 느낌, 무료함 등과 같은 것을 측정하는 BPS 하위척도와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것은 외현적 자기애자들의 지루함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강제성이 지각된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이상적인 것에 대한 내적 세계를 강조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내적 자극의 결핍으로 인해 지루함과 무의미성을 경험하게 됨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내적 야망(실체적 자기)과 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상적 자기)와의 불일치로 인해 지루감, 공허감, 불만족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은 결국 소외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알아보고, 소외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구체적인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 및 하위요인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과 소외감 및 하위요인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610명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중 설문지의 방어척도에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응답하여 응답 결과가 방어진일 가능성이 있는 사례 수와 응답 프로파일이 극단적으로 치우쳐 신뢰성이 없을 수 있는 사례 수 72명은 제외시켜 총 538명을 통계처리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538명 중 남학생이 409명(76.02%), 여학생이 129명(23.98%)이었다.

2. 측정도구

가) 자기애적 성격 성향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는 기존의 외국 번안 척도들과 국내의 자기애적 성격 장애 척도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척도를 만들었다. 본 연구자가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를 다시 만든 이유는 기존의 외국 번안 척도들이 예, 아니오로 답하는 강제 선택형 자기애적 성격 척도였기 때문에 자기애를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구성에 있어서 번안 척도들은 기존 연구자의 요인구성과 번안하여 회전시켰을 때의 요인구성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또 문항내용이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한 문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기존 연구자들의 하위요인과 문항을 분석하여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의 각 요인을 권위, 착취/특권의식, 우월성, 허영심, 자기중심성,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 과장성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사용된 척도범위는 7점 척도였다. <표 1>은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의 하위요인별 요인 척도간 상관계수, 요인 부하량, 문항 수 및 신뢰도를 나타낸 것인데, 예비문항 총 65문항에서 각 하위요인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 요인척도간 상관계수와 신뢰도를 기준으로 하여 타당도가 낮은 문항은 제외시켜 총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및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69~.89의 분포를 가지며,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표 1>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의 구성

요인	<i>R</i>	<i>F</i>	문항 수	신뢰도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47	.89
권위	0.75	0.83	9	.79
착취/특권의식	0.76	0.84	7	.77
우월성	0.73	0.83	7	.82
허영심	0.64	0.73	5	.78
자기 중심성	0.58	0.67	7	.69
칭찬/주목에 대한 욕구	0.75	0.83	7	.81
과장성	0.64	0.74	5	.70

R : 요인 척도간 상관계수 *F* : 요인 부하량

나) 소외감 척도

소외감에 대한 문항은 이명신(1998)이 사용한 소외감 척도 60문항 중 무력감(6문항), 의욕 상실(9문항), 허무주의(9문항), 극단적 모험성(6문항) 등 4개 하위요인 총 30문항을 선정하여 청소년 실정에 맞게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7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소외감 척도 신뢰도 계수는 .93이었고,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61~.85로 나타났다.

<표 2> 소외감 및 하위요인별 문항 수, 신뢰도

척 도	문항 수	α
소외감	30	.93
무력감	6	.69
의욕상실	9	.85
허무주의	9	.83
극단적 모험성	6	.61

3. 연구절차 및 통계처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만든 질문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아니면 해당 학교 상담교사 또는 담임교사의 협조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처리 방법은 먼저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것을 좀더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점수 분포를 상, 중, 하로 나누어 각 집단에서 소외감에 대한 점수 차이가 있는지, 또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자기애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 및 하위요인과의 관계,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별 소외감 및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 및 하위요인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과의 관계

<표 3>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 및 하위요인간의 상관분석 결과

척도	자기애적 성격성향
소외감	.34**
무력감	.23**
의욕상실	.30**
허무주의	.41**
극단적 모험성	.34**

** $p < .01$

상관분석 결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소외감 및 하위요인 모두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별 소외감 및 하위요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소외감 및 무력감, 의욕상실, 극단적 모험성 등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모든 하위요인과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허무주의는 과장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과 소외감 및 무력감, 의욕상실, 허무주의, 극단적 모험성간의 전체적인 상관계수의 경향성을 살펴보았을 때,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 중 착취/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이 소외감 및 하위요인과 상대적으로 상관이 많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표 4>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과 소외감 및 하위요인간의 상관분석 결과

척도	요인	권위	착취/특권	우월성	허영심	자기중심	창찬/주목	과장성
소외감		.29**	.41**	.28**	.17**	.41**	.23**	.26**
무력감		.24**	.36**	.25**	.15**	.39**	.20**	.24**
의욕상실		.18**	.31**	.19**	.09**	.32**	.14**	.19**
허무주의		.27**	.39**	.25**	.14**	.38**	.17**	.26
극단적 모험성		.36**	.42**	.31**	.26**	.40**	.32**	.27**

** $p < .01$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 및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성향(NPS) 점수 분포의 25%와 75%에 해당하는 점수를 상·중·하 집단으로 나누

어, 소외감 및 하위요인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중·하 집단간의 소외감 및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점수와 변량분석 결과, 그리고 각 집단간 차이에 대한 Duncan 검증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Duncan 검증결과에서 부등호 표시는 각 조건에서의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더 크거나 작음을 나타내고, 등호표시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5> 자기애적 성격성향(NPS)의 상·중·하 집단별 소외감 및 하위요인 점수의 평균과 변량분석, Duncan 검증결과

척도	평균점수	NPS 상집단	NPS 중집단	NPS 하집단	F	Duncan 검증결과
소외감		103.25(33.80)	90.40(25.86)	77.88(25.50)	24.80***	상>중>하
무력감		21.34 (7.35)	18.27 (5.42)	16.22 (5.86)	23.52***	상>중=하
의욕상실		29.19(12.31)	26.36 (9.77)	23.39 (8.93)	10.79*	상>중>하
허무주의		30.60(11.55)	26.67 (9.05)	22.96 (8.71)	19.83**	상>중>하
극단적 모험성		22.08 (6.39)	19.55 (5.31)	16.24 (5.59)	35.93***	상>중>하

* $p < .05$ ** $p < .01$ *** $p < .001$

변량분석 결과, 모든 척도에서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중·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검증으로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소외감 및 하위요인 점수 모두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집단이 중, 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강할수록 소외감, 무력감, 의욕상실, 허무주의, 극단적 모험성 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강할수록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면 이러한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자기애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소외감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이 소외감 변동의 22.5%($R^2=.22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 중 착취/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이 유의미하게($p < .01$) 소외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과의 관계

<표 6> 소외감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다중회귀 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F	Beta	t
소외감	착취/특권의식	.225	15.912 ***	.313	4.316 *
	우월성			-.066	-.808
	허영심			-.026	-.438
	과장성			.106	1.515
	권위			-.017	-.233
	칭찬과 주목			-.169	-2.332
	자기중심성			.330	5.569 *

* $p < .01$, *** $p < .001$

그리고, 착취/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이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Beta값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기중심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외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외감 하위요인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체적인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소외감 하위요인 각각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무력감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다중회귀 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F	Beta	t
무력감	착취/특권의식	.203	15.112 ***	.279	3.984 *
	우월성			-.010	-.131
	허영심			-.029	-.497
	과장성			.070	1.046
	권위			-.047	-.680
	칭찬과 주목			-.170	-2.393
	자기중심성			.349	6.085 *

* $p < .01$, *** $p < .001$

먼저, 무력감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표 7>,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이 무력감 변동의 20.3%($R^2=.20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 중 착취/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이 유의하게($p < .01$) 무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착취/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이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Beta값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기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무력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의욕상실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다중회귀 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F	Beta	t
의욕상실	착취/특권의식	.147	10.208 ***	.265	3.619 *
	우월성			-.034	-.420
	허영심			-.062	-1.025
	과장성			.066	.955
	권위			-.042	-.579
	칭찬과 주목			-.178	-2.451
	자기중심성			.306	5.130 *

* $p < .01$, *** $p < .001$

그리고, 의욕상실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다중회귀 분석<표 8>에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이 의욕상실 변동의 14.7%($R^2=.14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 중 착취/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이 유의미하게($p < .01$) 의욕상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착취/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이 의욕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Beta값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기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욕상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허무주의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표 9>,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이 허무주의 변동의 21.8%($R^2=.218$)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 중 착취/특권의식과 과장성,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기중심성이 유의미하게($p < .05$) 허무주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착취/특권의식과 과장성,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기중심성이 허무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Beta값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기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착취/특권의식,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 과장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는 부적인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허무주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은 자기중심성과 착취/특권의식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또 허무주의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은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표 9> 허무주의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다중회귀 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F	Beta	t
허무주의	착취/특권의식	.218	15.934 ***	.311	4.409 *
	우월성			-.081	-1.017
	허영심			-.055	-.940
	과장성			.138	2.039 *
	권위			.028	.398
	칭찬과 주목			-.238	-3.437 *
	자기중심성			.324	5.608 *

* $p < .05$, *** $p < .001$

마지막으로, 극단적 모험성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표 10>,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이 극단적 모험성 변동의 20.2%($R^2=.20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 중 착취/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이 유의미하게($p < .01$) 의욕상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착취/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이 극단적 모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Beta값으로 살펴보았을 때, 착취/특권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극단적 모험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은 착취/특권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극단적 모험성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다중회귀 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F	Beta	t
극단적 모험성	착취/특권의식	.202	15.120 ***	.222	3.177 *
	우월성			-.012	-.147
	허영심			.039	.661
	과장성			.059	.881
	권위			.075	1.093
	칭찬과 주목			-.054	-.783
	자기중심성			.216	3.779 *

* $p < .01$, *** $p < .001$

IV. 논 의

본 연구는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 및 하위요인과의 관계,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과 소외감 및 하위요

인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소외감 및 하위요인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소외감 및 하위요인 점수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상 집단이 중, 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자기애적 성격 특성은 자기중심성과 착취/특권의식이었으며, 소외감 하위요인 중 특히 무력감, 허무주의, 극단적 모험성 등이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많았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내면적으로 소외감 및 무력감, 의욕상실, 허무주의, 극단적 모험성 등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소외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은 자기중심성과 착취/특권의식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기존의 선행 이론 및 연구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즉, 자기에 개념에 대한 Akhtar와 Thomson(1982), Wink(1991b)의 설명에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열등감, 무가치함, 취약함, 만성적인 지루함, 무력함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으며, Meissner(1986)는 소외의 문제를 자기의 병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정신분석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자기를 지루함과 연관시켜 왔으며(Winnicott, 1965; Kohut, 1977; Masterson, 1990; Miller, 1981), 경험적 연구에서도 자기애와 지루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증명해 왔다(Emmons, 1981; Helson, 1993; Wink & Donahue, 1996; Wink & Donahue, 1997). 특히, Wink와 Donahue(1997)의 연구결과는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내적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 흥분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뚜렷함을 보여주면서, 외현적 자기애자들의 지루감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강제성이 지각된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이상적인 것에 대한 내적 세계를 강조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내적 자극의 결핍으로 인해 지루함과 무의미성을 경험하게 됨을 시사하였다.

여기서, 우울감은 내현적 자기애자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정서인데, Bibring(1953)은 우울증을 자아의 자기 존중감이 부분적으로 붕괴될 때, 혹은 자체적으로 붕괴될 때 나타나는 정서적 측면이라고 정의하면서, 우울적 현상들과 자기애적 역동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우울적 상태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는 자기 존중감의 붕괴 혹은 감소라고 지적하면서 우울적 상태에서 환자들은 우월한 힘들에 직면하여 무기력하게 느끼거나 질병에 걸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보다 심리적인 면에서 외로움, 고립감, 사랑과 애정의 결핍, 약함, 열등감 혹은 실패감 등을 느끼며, 이와 같은 자신들의 운명은 피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으며 그 방향을 바꿀 수도 없다고 느낀다. 즉 그들은 자기 자신을 무기력하고 무능한 아무 희망도 없는 존재로 느낀다고 하였다. Meissner(1986)에 의하면, 이러한 환자들은 무력감에 직면하여 고도로 자기애적으로 형성된 자기 존중에 적합한 일련의 목적들을 강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우울증 환자는 자신이 힘이 있고 강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사랑 받고 인정받으며, 뛰어난 재능과 특별한 자질을 타고난 존재라고 간주되기를 열망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울증의 핵심에는 이러한 매우 강렬한 자기애적 열망들과, 그것들을 성취하지 못하는 자아의 무력함과 무능력에 대한 의식 사이에 심한 불일치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는 실패에 대한 공포가 늘 따라 다니며, 환자는 열등함이나 결함에 대한 공포가 작용할 때마다 절망을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대적인 환상은 강한 내부의 욕구

들 때문에 종종 과도하게 집중되며, 이때에 소원과 현실 사이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이러한 과대적이고 승화되지 못한 환상들은 전적인 낙담과 무가치감 혹은 건강 염려증적 불안들로 쉽게 변화한다. 종종 자기애적인 고통으로 인해 자기 존중감은 극단적이고 난폭하게 동요하는 형태를 띠며, 자신에 대한 고양과 자기 매혹의 순간은 거의 주기적으로 전적인 낙담과 무가치감으로 이어진다.

Bibring(1953)은 우울증을 자아가 자기애적으로 투자된 대상에 대한 갈망을 유지하는 한, 그리고 대상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상실감을 회복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아와 대면하는 한, 우울증은 지속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울증은 무력하다는 느낌, 혹은 전혀 희망이 없다는 느낌을 갖는 정서 상태와 함께 자기 존중감의 감소가 일차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정서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우울에의 경향은 초기 아동기에 고착된 무력함의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원래적 상태가 이후의 자기애적 소원들이 좌절되는 상황들에서 퇴행적으로 재활성화된다. 자기 존중감에 대한 상처는 종종 자기애적인 자기 팽창과 과대주의를 통해서 보상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보상시도가 실패했을 때 그 결과로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우울증은 자기애적 고양, 특히 과대주의의 다른 한쪽 면으로서, Miller(1979)는 과대주의와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과대적인 사람은 존경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즉 무엇이든지 그가 시작한 일은 훌륭하게 성취되어야만 하고, 그의 특별한 자질들은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그것들이 성공과 성취에 의해 지지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허약한 자기애에 대한 이러한 지지들 중에서 하나, 혹은 다른 것이 실패하면 그는 파국적인 우울함에 빠져 버린다고 하였다.

V. 요약 및 결론

개인의 독특한 개성과 잠재력을 실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자기자신을 진정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써,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이고 중요하다. 그러나 이 자기사랑이 현대사회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결탁되어버리면, 과도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집착의 형태로 변질되어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자기 가치감을 오히려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러한 사회를 '자기애적 사회'라고 하며, 이 자기애적 현상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문화적 흐름으로 강하게 자리잡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공주병' '왕자병'과 같은 용어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질 만큼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속성으로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기애의 병리적 현상은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사이의 불일치에 의해 형성되며, 소외의 문제와 연결되어진다. 즉, 소외의 문제는 이상화된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 사이의 불일치에 의해 일어나며, 개인의 모든 일에 있어서 현실감을 상실한 비인격적인 경향성으로 인해

자기자신의 삶에서 점점 더 현실적인 자기를 포기하고 무력한 삶의 형태로 후퇴하게 만든다. Meissner(1986)는 소외의 문제가 사회적, 문화적 기반과 관계하는 정체성의 문제로 보고, 소외의 병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병리라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과의 관계, 소외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구체적인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소외감 및 하위요인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소외감 및 하위요인 척도 점수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집단이 중, 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자기애적 성격 특성은 자기중심성과 착취/특권의식이었으며, 소외감 하위요인 중 특히 무력감, 허무주의, 극단적 모험성 등이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많았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내면적으로 사회적, 개인적인 일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해 버리는 무력감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나 중요성, 진리를 믿지 않는 의욕상실증, 의미 있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허무주의, 극단적이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면 생동감을 느끼지 못하는 극단적 모험성 등과 같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은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자기중심성과, 특별대우를 받을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특별대우나 복종을 바라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착취성과 특권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VI. 참고 문헌

- 이만홍·육기환, 한국인이 생각하는 나르시시즘의 개념에 대한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5, 3, 1996, pp.678~689.
- 이재훈, 편집증과 심리치료, 서울 :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 최경도, 나르시시즘의 문화, 서울 : 문학과 기성사, 1989.
- 한수정,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Akhtar, S., & Thomson, A.,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 1982, pp.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1994.
- Bibring, E., The mechanism of depression. In *Affective Disorders*, ed. P. Greenacre, 13~48.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3.

- Emmons, R. A.,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sensation seeking. *Psychological Reports*, 48, 1981, pp.247~250.
- Fromm, E., *The Sane Socie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55.
- Gabbard, G., Two subtyp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3, 1989, pp.527~532.
- Helson, R., Comparing longitudinal studies of adult development : Toward a paradigm of tension between stability and change. In D. C. Funder, R. D. Parke, C. Tomlinson Keasey, & K. Widaman (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93~119),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3.
- Horney, K., *Neurosis and Human Growth*. New York; Norton, 1950.
- Kernberg, O. F.,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1975.
- Kohut, H.,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71.
- Kohut, H.,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 Maddi, S. R., Kobasa, S. C., & Hoover, M., An alienation test,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9, 1979, pp.73~76.
- Mahler, M. S., On human symbiosis and vicissitudes of individuation, In *Selected Papers*, 2, 77~98. New York: Aronson, 1979.
- Masterson, J. F., *The search for the real self*, New York : Free Press, 1990.
- Meissner, S. J, W. W., *Psychotherapy and the paranoid process*, Jason Aronson Inc., 1986.
- Miller, A., Depression and grandiosity as related forms of narcissistic disturbances,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o-Analysis* 6, 1979, pp.61~76.
- Miller, A., *The drama of the gifted child*, New York : Basic Books, 1981.
- Nunberg, H. G.,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Diagnosis, *Weekly Psychiatry Update Series*. 3: Lesson 17, 1979.
- Wink, P., Self- and object-relatedness in adul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59, 4, 1991a, pp.769~791.
- Wink, P.,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4, 1991b, pp.590~597.
- Wink, P., Narcissism. In C. G. Costello (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disordered*, New York: Wiley, 1996, pp.146~172.
- Wink, P., & Donahue, K., Implications of college-age narcissism for psychosocial functioning at midlife : Findings from a longitudinal study of women,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 1996, pp.73~85.
- Wink, P., & Donahue, K., The relation between two types of narcissism and boredo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1997, pp.136~140.
- Winnicott, D. W., Ego distortions in terms of true and false self. In D. W. Winnicott,

차 타 순

The maturational processe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146~152), London : Hogarth, 1965.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Alienations

Ta-Soon CHA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sychiatry features of narcissism are molded by the outcome of a mismatch or lack of tension between the realistic self and the ideal self, and it is related to the problems of alienation. That is, the problems of alienation lead to the outcome of a mismatch between the realistic self and the ideal self by the unindividuality which lose a senses of the reality in all every things, and it make man to even more to give up the realistic self and to be alive powerlessness living.

In this views,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alienations or subfactors, and the concrete subscale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Scale which had a influence on the alienations to experientially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alienations. Juveniles were administered both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Scale and the Alienations Scale.

The result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alienations, and the alienations was influenced of the self-centeredness and the exploitation/privilege subscale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Scale. Therefore, narcissists feel alienations too much, and the more a person has self-centeredness and exploitation/privilege of narcissistic traits, the higher alienations is.